

제9장. 소리끼우기현상과 관련한 발음

제25항. 고유어가 들어가 만들어진 합친말(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)의 뒤형태부가 《이, 야, 여, 요, 유》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) 앞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날 때에는 형태부 사이에 [ㄴ]을 끼워 발음한다.

례: - 논일[논닐], 밭일[반닐], 꽃잎[꼇
닙], 안팍일[안팡닐], 옛일[옌
닐], 낮익은[난니근], 못잇을[몬
니즐], 짓이기다[진니기다]
- 들양[들냥→들량], 산양[산냥]
- 불여우[불녀우→불려우]
- 눈요기[눈뇨기]
- 풋웃[푼눈]

그러나 《있다》의 경우에는 제10항에 준하여 끊어내기로 발음한다.

2) 앞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날 땡는 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에 한하여 [ㄴㄴ]을 끼워 발음한다.

사이소리가 끼우지 않는 경우

례: 나라일, 바다일, 베개잇

사이소리가 끼우는 경우

례: - 수여우[순녀우], 수양[순냥]

- 아랫니[아랜니]

제26항. 《암, 수》가 들어가 만들어진 단어의 발음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) 뒤형태부의 첫소리가 《ㄱ, ㄷ, ㅂ, ㅈ》인 경우는 [ㅋ, ㅌ, ㅍ, ㅊ]의 거센소리로 발음한다.

례: - 암돼지[암돼지], 수강아지[수강

아지], 수병아리[수평아리]

- 암기와[암기와], 수돌쩌귀[수돌
쩌귀]

2) 그밖의 경우 앞형태부가 《수》이면 사이소리를 끼워 발음한다.

례: - 수사자[술사자→수싸자], 수소[술
소→수쏘]

- 수나비[술나비→순나비], 수오리
[술오리→수도리]

제27항. 고유어로 만들어지는 일부 합친말이나 단어결합에서 사이소리가 끼여나

는 경우에는 형태부들사이에 《ㄷ》을 끼워
발음한다.

- 례: - 강가[강ㄷ가→강까], 길가[길ㄷ
가→길까]
- 바다가[바달가→바다까], 수도가
[수돗가→수도까]
- 뒤문[뫼문→뫼문], 뒤사람[뫼사
람→뫼싸람]